

예술에 물든 마을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의 작품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한적한 마을에 살아 숨 쉬는 예술의 향기가 제주를 예술의 섬으로 거듭나게 한다.



용금로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014 ~ 한림읍 금약리 124-3(약 12.1km)

저지1길 |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504-11 ~ 한경면 저지리 1510-2(약 0.2km)

낙수로 |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1363-1 ~ 한경면 청수리 1640-2(약 3.1km)

낙원로 |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2085-2 ~ 한경면 낙천리 1931-1(약 1.7km)

복호로 |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6-1 ~ 한경면 조수리 1904-1(약 3.4km)

용금로 |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용금로는 한경면 용수리에서 한림읍 금악리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이 길을 따라 저지리에 이르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만난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예술인들이 직접 이곳에 살면서 지역 주민들과 예술로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마을이다. 제주를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이어서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제외하고는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전국의 유명한 예술인들에게 창작과 거주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를 저렴하게 제공하였고, 예술인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작품 활동과 전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현재 40여 명의 예술인들이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저지문화예술인 마을과 함께 예술적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이곳에는 제주현대미술관이 들어서 있다. 시내에 집중된 문화예술기관과 달리 한적한 저지리 마을에 세워진 현대미술관은 다양한 전시를 통해 제주 서쪽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들의 전시공간과 연계해서 보다 풍부한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과 제주현대미술관은 저지리를 예술에 물드는 마을로 거듭나게 했다.

저지1길 | 저지오름



저지오름

저지리의 마을 주변에는 저지1길과 같이 마을 이름을 반영한 길들이 나있다. 저지리는 예전에 닥나무라고 불렸다. 이것은 마을에 닥나무가 많고 지대가 높다는 뜻에서이다. 이것이 한자어로 표기되면서 저지(楮旨)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저지리는 저지오름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겨났다. 둥그런 원형 모양의 저지오름은 새오름이라고도 불렀는데

데 초가집 지붕에 쓰이는 새가 많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지오름의 정상에는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날이 좋으면 동쪽으로는 한라산이, 서쪽으로는 해안가에 이르는 오름까지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 옆에는 분화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분화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내려서면 세상의 고요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정상에서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분화구 안에는 바람이 닿지 않는다. 저지오름은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 2007년 생명의 숲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낙수로 | 낙천리아홉굿마을

저지리 서쪽에는 낙천리가 있다. 용금로에서 갈라지는 **낙수로**는 낙천리와 조수리를 연결하는 길이어서 각 마을의 한 글자씩을 따왔다. 낙천리(樂泉里)의 옛지명은 샘이 풍부한 마을이란 뜻으로 서사미 또는 서천미로 불려왔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대장간인 불미업이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불미업에 사용하는 재료인 점토를 얻기 위해 마을에 아홉 개의 구멍을 뚫었는데, 이 구멍에 물이 고이면서 샘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아홉 개의 샘(굿)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아홉굿마을이라 부른다. 최근에는 천 개의 의자가 있는 의자마을로 유명하다. 독특한 의자들을 마을 곳곳에 설치하고 전국 공모전을 통해 뽑힌 이름을 의자마다 새겨 넣어 특색 있는 장소로 마을을 알리고 있다.

낙원로 / 복호로 | 한원리와 복호동

낙원로는 낙천리와 한원리를 연결하는 길이다. 한원리(漢源里)는 옛날에 서리눈 또는 서문눈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반동(盤洞)이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지금은 행정구역 상 두모리에 속한 마을로 한원리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복호로**는 신창리에서 조수리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한원리에 있는 복호동을 지나는 의미로 부여된 이름이다. 복호동(伏虎洞)은 북쿠눈 또는 북후눈이라고도 불렸는데 마을의 지형이 마치 옆드린 호랑이 같이 생겼다는데서 복호동이라 했다고 전한다.